

휘발유, 리터당 1500원대 진입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이 1년 만에 리터당 1500원대로 내려섰다.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3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599.94원으로 전날대비 2.04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7년 11월 첫째 주(1582.03원)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 1500원대로 내려선 곳은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1587.05원)와 충북(1596.18원), 전북(1570.88원), 전남(1595.50원), 인천(1587.58원), 광주(1587.20원) 등 6개에 그쳤다.

반면, 서울은 1631.36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1629.00원), 대구(1614.51원), 경북(1610.34원) 등 10개 지역은 1600원대에 머물렀다.

경유 평균가격은 1483.71원으로 전날보다 2.73원 내려 3월 둘째 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8/11/03>